2025년 상반기 거창군 군의원 회의록 기반 의정활동 평가

- 차례 -

Ⅰ. 군의원 개인 평가

-2025년 상반기 회의록 기반 의정활동 AI 분석-

1. 김향란 의원 ····· 3
2. 김혜숙 의원 ····· 6
3. 김홍섭 의원 ····· 9
4. 박수자 의원 ····· 12
5. 신미정 의원 ····· 15
6. 신재화 의원 ····· 18
7. 신중양 의원 ····· 21
8. 이재운 의원 ····· 24
9. 이홍희 의원 ····· 27
10. 최준규 의원 ····· 30
11. 표주숙 의원 ····· 33

Ⅱ. 군의원 비교 평가

1. 출석(횟수) ····· 36
2. 조례대표발의(건수) ····· 37
3. 5분 발언(건수) ····· 39
4. 발언(건수) ····· 41
5. 발언 총량(KB) ····· 42
6. 가치발언 문장수 ····· 43
7. 가치발언 비율 ····· 44
8. 대군수지적 문장수 ····· 45
9. 대군수지적 비율 ····· 46
10. 군의원 피고발(건수) ····· 47
11. 종합 데이터 ····· 48

[분석방법]

『함께하는 거창』은 군의원의 활동력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그 일환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거창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 함께하는 거창
* 자료 : 거창군의회 홈페이지 최근 회의록
* 분석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제284회 ~ 제287회)

1. 본 평가는 2025년 상반기에 거창군의회가 개최한 제284회 ~ 제287회 회기 중, 2025년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 본 결과값은 의원의 직책 및 담당 분과에 따른 기회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단, 의장·부의장·위원장·부위원장·대행 등 진행을 맡은 위원의 진행 발언은 제외하였으며, “네, 예, 아, 어, 음, 그렇군요” 등 단순 반응성 발언도 제외하였다.
3. 의장은 상임위원이 아니므로 분과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따라서 출석 횟수와 발언 총량, 가치발언 수치 등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4.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과 종합 평가는 군의원 개인별 회의록 데이터를 ChatGP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5. 순위는 상임위별 회의 횟수 차이를 고려하여 출석을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다만 출석 역시 성실성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출석 횟수는 함께 제시한다.
6. 의원별 회의록 발언을 전수 검토하여 발언 건수, 발언 총량(KB), 가치발언 문장수, 대군수 지적 문장수를 산출하였다. 비율 산정은 원칙적으로 KB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발언량이 극히 적은 경우(예: 의장직 수행)에는 문장 수 기준을 병행하였다.
7.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분석을 고도화하여 군의원 의정활동을 더욱 세밀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거창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다.

■ 평가 한계 및 참고 사항

- 본 평가는 공식 회의록을 바탕으로 한 분석 자료로, 의원 개개인의 모든 활동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주민 민원 해결, 지역 행사 참여, 언론 인터뷰, 현장 방문 등 비공식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 발언량이 적은 의원의 경우, 회의록 기준으로 활동이 적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의정활동 전반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의장은 회의 진행과 운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분과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회의록 발언량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

Ⅰ. 군의원 개인 평가

-2025년 상반기 회의록 기반 의정활동 AI 분석-

1. 김향란 의원

<1> 김향란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김향란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보건·의료 정책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김향란 의원은 지역 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꾸준히 강조했다. 출산 인프라 확충, 산과 전문의 유치, 적십자병원·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건 정책 개선을 주문했고, 우울·자살 예방 프로그램, 학생 정신건강 관리, 고령화 대응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 청년·주거 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

청년 정책은 김 의원의 발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임대주택 건립, 신혼부부 주거 지원, 로컬유학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예산 심의 및 행정 운영 개선

김 의원은 예산 배분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꾸준히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공공시설 투자 효율성 검토, 복지·교육 예산 집행 개선 등 구체적인 점검과 지적이 이어졌다. 대군수지적 문장수(167건)와 가치발언 문장수(228건)는 모두 군정 전반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라 평가된다.

4.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김 의원은 연극도시 거창의 브랜드 활용, 국제연극제와 연계한 청년 예술인 지원,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레포츠파크, 창포원, 문화거리와 근대의료박물관 결합, 숙박·관광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5. 복지·교육 및 생활 정책

김 의원은 다문화·조손가정 지원, 통합돌봄센터 운영, 장애인·아동 복지 확대, 실내형 키즈카페 도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요구했다. 학교 복합시설, 복지회관 주차장 확충, 노인·아동 돌봄에 이르기까지 생활밀착형 의제를 세세하게 다뤘다.

〈3〉 김향란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김향란 의원은 2025년 상반기 동안 거창군의회에서 보건·청년·예산·문화·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응급의료, 출산 지원, 우울·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뚜렷했다.

청년 정책과 주거 정책을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축으로 삼아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지원, 로컬유학 추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고민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군정의 문제점을 세밀히 지적하며(대군수지적 문장수 167건), 행정의 효율성을 촉구했다. 이러한 태도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제안과 요구가 많다 보니 집행 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또 행정 집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이 많아 민간과 주민의 자율성을 살리는 균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김향란 의원은 거창군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루며 정책 대안 제시와 군정 감시 기능을 적극 수행한 의원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건·복지·청년 정책 분야에서 군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두드러지며, 앞으로는 정책 실행력과 주민 자율성 보장을 더 강화한다면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김혜숙 의원

<1> 김혜숙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김혜숙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보건·복지 및 생활 정책

김혜숙 의원은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 사회복지 확대와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특히 출산 지원과 관련된 발언이 여러 차례 등장했고, 지역 내 복지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 예산 심의 및 행정 운영 개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군수지적 발언은 총 52건으로, 행정 관리 소홀이나 예산 낭비, 시설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3. 환경·에너지 정책

태양광, 가축분뇨 처리,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옥상 태양광과 녹색성장, 폐기물 관리 등 구체적인 의제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4.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 로컬푸드, 국제연극제 연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과 도시재생, 개발사업 추진 등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관심을 보였다.

〈3〉 김혜숙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김혜숙 의원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생활 밀착형 정책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에 주목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출산 장려와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군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고,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태양광과 탄소중립, 폐기물 관리 등은 장기적인 지역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김 의원의 관심이 지역 미래지향적 의제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대군수지적 발언 52건은 예산 낭비, 시설 노후화, 관리 소홀 등의 사안을 짚은 것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다만, 가치발언 문장수(48건)와 비율(8.65%, 정성평가 데이터 참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정책 제안이 좀 더 폭넓고 구체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가운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보완하는 것도 과제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김혜숙 의원은 생활 밀착형 의제와 환경·예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군민 삶과 행정 운영의 개선을 요구한 의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김홍섭 의원

<1> 김홍섭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김홍섭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

김홍섭 의원은 적십자병원, 지역 의료체계, 의료복지 등 군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강조하며 군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보였다.

2. 예산 심의 및 행정 운영 개선

대군수지적 문장수는 289건으로, 의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행정 운영 전반에서 “안된다,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낭비, 부실시공, 행정관리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발언 강도 또한 높아 군정 견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3. 환경·에너지 및 도시 정책

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친환경농업,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의제를 꾸준히 다뤘다. 도시계획, 도로교통,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 인프라 관련 사안도 함께 제시하며,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고민했다.

4.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연극제, 문화예술,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 소상공인지원 등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는 정책 제안도 다수 있었다.

5. 주민참여 및 소통 강화

주민자치, 주민참여, 주민의견 수렴 등 직접민주주의적 장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했다.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해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3> 김홍섭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김홍섭 의원은 2025년 상반기 동안 거창군의회에서 군정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한 의원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대군수지적 발언이 289건에 달할 정도로 군 행정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고, 예산낭비, 행정 관리 소홀, 부실시공 같은 사안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태도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꾸준히 강조하며 군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도시·교통 등 생활 기반 전반을 다루며 군정 운영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요구했다.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까지 의제의 폭도 넓어 다방면에서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치발언 문장수(217건)와 비율(11.94%, 정성평가 데이터 참조)은 많지만, 강한 지적성 발언에 비해 대안 제시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보인다. 정책적 대안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한다면 발언의 설득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종합하면, 김홍섭 의원은 군정 감시와 견제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낸 의원으로 평가된다. 보건·환경·도시·경제 등 주요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루었고, 군정 운영의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강한 비판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까지 병행할 때, 군민 신뢰와 정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4. 박수자 의원

<1> 박수자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박수자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보건·복지 및 출산 정책

박수자 의원은 출산 장려, 아동·노인 복지, 의료복지 등 생활밀착형 복지 의제를 다수 제기했다. 특히 출산 지원과 저출산 대응 방안, 노인일자리와 아동학대 예방 같은 세부 과제를 강조하며 군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2. 예산 심의 및 행정 운영 개선

대군수지적 문장수는 220건으로,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했다. 발언에서는 “안된다, 부족하다, 잘못됐다”와 같은 표현이 두드러졌으며, 예산낭비·관리감독 소홀·행정 절차 미흡 등을 꾸준히 지적했다. 이는 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3. 지역경제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개발, 경제효과 분석, 지역농산물 활용 등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 관련 의제가 자주 등장했다. 로컬푸드, 스마트농업, 창업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 기반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4. 환경·에너지 및 안전 정책

쓰레기, 폐기물, 가축분뇨 처리, 환경보호, 지구온난화 대응 등 환경 관련 사안을 지적했다. 재난안전, 안전교육, 안전관리 같은 생활 안전 과제도 함께 다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발언이었다.

5. 문화·관광 및 교육 정책

국제연극제, 문화예술, 관광진흥 등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언이 있었고, 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 교육과정 개선 등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보였다. 복합문화센터와 공연장 같은 시설 활용 문제도 제기했다.

〈3〉 박수자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박수자 의원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생활 밀착형 정책과 행정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출산 장려, 아동·노인 복지, 의료복지 등 군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사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복지 중심의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군수지적 발언 220건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낭비, 관리 소홀, 행정 절차 미흡 등을 비판했다. 발언의 강도가 높은 편으로, 군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경제와 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경제활성화, 스마트농업, 창업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고,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자원의 활용과 프로그램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환경·에너지, 안전 분야에서도 꾸준히 발언하며 군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강조했다.

다만 가치발언 문장수(153건)와 비율(10.44%, 정성평가 데이터 참조)은 활동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다양한 의제가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군정에 대한 강한 지적과 함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병행한다면 발언의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종합하면, 박수자 의원은 복지·출산 정책과 군정 운영 감시에 중점을 두면서도 지역경제, 환경,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다룬 의원으로 평가된다. 강한 지적 활동과 함께 정책적 실행력을 강화한다면 군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신미정 의원

<1>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신미정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보건·복지 및 생활 정책

신미정 의원은 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강조했다. 출산 장려와 저출산 대응, 아동·노인 복지 확대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제기했으며, 응급의료기관 개선과 보건정책 강화를 언급했다.

2. 예산 심의 및 행정 운영 개선

대군수지적 문장수는 131건으로, 군정 운영 전반에서 부족함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토해, 안된다, 부족하다”와 같은 표현이 다수 나타났고, 예산낭비, 행정 관리 소홀, 형평성 문제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군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발언이었다.

3. 환경·에너지 및 기후 정책

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친환경,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분야 의제가 두드러졌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생태계 보존 등을 강조하며, 군정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4. 지역경제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경제활성화, 자영업자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미래농업, 기술개발 같은 농업 혁신 의제도 다루면서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5. 문화·관광 및 교육 정책

국제연극제, 문화예술, 지역축제, 문화체험 등 문화·관광 활성화 의제를 제시했고, 평생교육, 교육정책, 예술교육 등 교육 분야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의견수렴 강화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장치에도 관심을 보였다.

〈3〉 신미정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신미정 의원은 2025년 상반기 동안 보건·복지, 환경,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며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가치발언 문장수는 185건, 비율은 77.55%에 달해 의정활동의 질적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복지와 보건 영역에서는 출산 장려, 복지사각지대 해소, 응급의료기관 개선 등을 제기하며 생활밀착형 의제를 꾸준히 다뤘다. 군민 건강권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정책적 관심이 뚜렷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쓰레기·폐기물 관리 같은 현안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지역 차원의 환경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로 볼 수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군수지적 발언 131건을 통해 행정 운영의 문제와 부족함을 지적했다. 다만 발언의 상당 부분이 지적 중심이라, 대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종합하면, 신미정 의원은 복지·환경·경제·문화 전반에서 고른 관심을 보이며 의제를 제기한 의원으로 평가된다. 높은 가치발언 비율이 보여주듯 군민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 강점이 있지만, 지적성 발언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실행 전략까지 뒷받침한다면 의정활동의 성과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6. 신재화 의원

<1> 신재화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신재화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보건·복지 및 생활 정책

신재화 의원은 복지정책, 의료서비스, 평생교육 등 군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의제를 다뤘다. 아동·노인 복지, 의료기기 확충, 복지사각지대 해소 같은 생활밀착형 과제를 제기했고,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군민 참여 기반 강화를 주장했다.

2. 예산 심의 및 행정 운영 개선

대군수지적 문장수는 173건으로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시정 요구가 활발했다. 발언에서는 “안된다,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성 표현이 두드러졌으며, 예산낭비, 행정 관리 소홀, 형평성 문제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행정 책임성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3. 환경·에너지 및 안전 정책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환경파괴 같은 의제를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 안전문제, 산사태 위험 등을 지적하며 주민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4.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육성, 거창 농산물 홍보 같은 경제 기반 강화 방안을 다뤘다. 또한 국제연극제, 문화공연, 문화재단 운영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의제도 제기했다.

〈3〉 신재화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신재화 의원은 2025년 상반기 동안 복지, 예산, 환경, 지역경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가치발언 문장수는 111건, 가치발언 비율은 41.65%로 발언의 질적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정책과 의료서비스 개선, 평생교육 등을 강조하며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폐기물 관리, 산림보호 같은 의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기후위기와 안전문제 대응을 요구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군수지적 발언 173건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산낭비, 행정관리 소홀, 형평성 부족 같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적성 발언의 강도가 높은 반면, 대안 제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다양한 문제를 짚어낸 것과 동시에, 이를 해결할 실행 방안과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신재화 의원은 군정 운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한 의원으로 평가된다. 복지, 환경, 경제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과 실행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설득력과 효과성을 높이는 과제가 될 것이다.

7. 신중양 의원

<1> 신중양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신중양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예산 심의 및 행정 운영 개선

신중양 의원은 군정 운영 전반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군수지적 문장수는 77건으로, 행정 관리 소홀, 예산 낭비, 형평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되, 문제점, 보완, 재검토” 같은 표현이 다수 나타났으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2. 보건·복지 및 생활 정책

복지정책, 의료서비스, 약자보호, 아동·노인 돌봄 같은 생활밀착형 사안을 언급했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 안전교육, 재난대응, 출산 지원 등 군민 생활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3. 지역경제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거점 육성, 면단위 균형 발전, 스마트 농업·스마트 시스템과 같은 미래 산업 기반 강화 의제도 다뤘다.

4. 문화·관광 및 공동체 활성화

관광진흥, 문화예술, 연극예술, 문화재단 운영,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등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제연극제와 같은 행사와 연계해 거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발언도 있었다.

5. 환경·도시 및 교통 정책

자전거도로, 교통신호, 교통흐름 개선 같은 교통 인프라 의제와 함께, 생태계 보존, 친환경, 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을 다뤘다. 이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관심으로 해석된다.

〈3〉 신중양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신중양 의원은 2025년 상반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의정활동을 펼쳤다. 발언 건수는 1,053건, 발언 총량은 208.66KB에 이르며, 군정 운영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는 태도를 보였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군수지적 발언 77건을 통해 행정 관리 소홀, 예산 낭비, 형평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교통약자 보호, 안전교육, 출산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다뤘고,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 같은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진흥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강조하며 지역 정체성과 경제 발전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가치발언 문장수는 80건, 비율은 38.34%로 발언의 질적 비중은 일정 수준 확보되었지만, 다양한 발언에 비해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신중양 의원은 예산·행정 운영 개선을 중심으로 군정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복지,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의제를 균형 있게 다룬 의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폭넓은 문제 제기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연결한다면, 군민 체감도가 높은 의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8. 이재운 의원

<1> 이재운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이재운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의장직 수행 및 의회 운영

이재운 의원은 의장으로서 회기를 주재하며 원활한 회의 운영과 동료 의원들의 활동 독려에 집중했다. 개회사와 마무리 발언에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고, 집행부와의 협력 속에서 의회의 건전한 기능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드러냈다 .

2. 조례 발의 및 의안 처리 참여

개별 정책 제안은 많지 않았으나,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등 의원 공동 발의 형태로 의안 처리에 참여했다. 이는 의장으로서 의회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3. 가치발언 및 군정 관련 언급

이 의원은 발언 총 5건, 발언 총량 51.64KB 중 가치발언 문장수는 4건(비율 80%)으로 기록되었다. 발언에서는 예산안 심사, 스마트농업,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원론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전반적인 행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머물렀다.

4. 대군수 지적 발언

대군수 지적 문장수는 2건(비율 40%)으로, 주로 ‘부족’, ‘검토’, ‘수정’ 등 행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실질적 견제보다는 행정의 신중한 검토와 효율적 추진을 당부하는 성격이 강했다.

〈3〉 이재운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이재운 의원은 2025년 하반기에도 거창군의회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주력했다. 발언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드물지만, 이는 의장의 위치상 불가피한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는 개회사와 회의 운영 발언을 통해 의회의 협치, 집행부와의 협력, 군민과의 소통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주민 편익 증진을 강조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치발언 비율이 80%(정성평가 데이터 참조)로 높게 기록된 것은 발언 자체가 원론적이지만 정책적 키워드를 포함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군수 지적 건수(2건)는 적어, 군정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종합하면, 이재운 의원은 의장직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회 운영과 소통에 무게를 두었으나, 군정 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앞으로는 의장으로서의 균형을 유지하되, 군민 생활과 직결된 의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이홍희 의원

<1> 이홍희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이홍희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보건·복지 및 생활 정책

이홍희 의원은 보건정책, 복지정책, 의료복지, 아동 지원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의제를 다뤘다. 출산 지원, 학교폭력 예방, 주민자치 확대 같은 생활밀착형 사안도 언급하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을 제시했다.

2. 예산 심의 및 행정 운영 개선

대군수지적 문장수는 51건, 대군수지적 비율은 KB 기준 57.69%에 이르며, 예산낭비, 선심성 사업, 행정관리 미흡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보완, 시정, 부족, 잘못된”과 같은 표현이 많이 등장했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요구했다.

3. 환경·에너지 및 기후 정책

쓰레기, 분리수거,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후 대응 같은 환경 분야 의제를 다뤘다. 특히 생활 쓰레기 처리와 자원 재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 지역경제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전략산업 육성, 스타트업 지원 같은 경제 의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지역농산물 활용 등 군민 체감형 정책도 언급했다.

5. 문화·관광 및 교육 정책

국제연극제, 연극예술,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관광 자원 활용 등 문화·관광 의제를 다뤘다. 교육지원, 지역교육, 인재개발, 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 정책도 제시하며,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3〉 이홍희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이홍희 의원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예산, 복지, 환경,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며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발언 건수는 192건, 발언 총량은 88.41KB로 기록되었고, 가치발언 문장 수는 54건(비율 61.08%)로 나타났다. 이는 발언의 질적 비중을 일정 수준 확보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동 복지, 출산 지원, 의료복지 같은 생활형 정책을 언급하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 문제, 기후 대응, 친환경 정책을 다루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요구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군수지적 발언 51건을 통해 예산낭비, 선심성 사업, 행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발언의 강도가 높은 반면, 대안 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 방안과 재정 확보 전략까지 보완한다면 설득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종합하면, 이홍희 의원은 군정 운영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감시 역할을 수행한 동시에, 복지·환경·경제·문화 전반에서 고른 관심을 보인 의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문제 제기를 넘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10. 최준규 의원

<1> 최준규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최준규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예산 심의 및 행정 운영 개선

최준규 의원은 군정 운영 전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대군수지적 문장수는 112건, 지적 키워드 총 등장 횟수는 136회였으며, “안되, 부족, 문제점, 검토해”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행정 관리 미흡, 예산낭비, 형평성 부족을 비판하며 군정 운영의 보완과 시정을 촉구했다.

2. 보건·복지 및 생활 정책

아동, 출산, 사회복지, 장애인·노인 복지 같은 생활형 의제를 다뤘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아동·노인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사업 강화를 주장했다.

3. 지역경제 및 농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면단위 균형 발전, 여성농업인 지원, 스마트농업, 미래농업, 6차산업 같은 의제를 다뤘다. 특히 농업의 혁신과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도 확인된다.

4. 문화·관광 및 교육 정책

관광진흥, 관광활성화, 지역관광, 국제연극제, 문화예술, 문화재단 운영 등을 언급하며 문화·관광 자원의 활용을 강조했다. 주민자치와 토론회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와 교육 의제도 함께 제기했다.

5. 환경·에너지 및 교통 정책

폐기물, 분리수거, 환경오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정책 같은 의제가 다뤄졌다. 교통수단과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도 언급되며, 주민 생활 기반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3〉 최준규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최준규 의원은 2025년 상반기 동안 군정 운영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관심을 보였다. 발언 건수는 956건, 발언 총량은 206.64KB에 이르렀다. 가치발언 문장수는 90건, 가치발언 비율은 43.55%로 기록되었으며, 대군수지적 발언은 112건, 지적 비율은 KB 기준 54.20%에 달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행정 관리 미흡과 예산낭비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행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노인 복지, 장애인 지원, 출산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조했다.

지역경제와 농업 분야에서는 면단위 균형 발전, 여성농업인 지원, 스마트농업 등 농업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진흥, 국제연극제, 문화재단 운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문화 활성화 전략을 다뤘다.

다만 가치발언 비율이 일정 수준 확보되었음에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다. 지적성 발언이 많은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 로드맵을 보완한다면 발언의 설득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종합하면, 최준규 의원은 군정 운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복지·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균형 잡힌 관심을 보인 의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강한 지적 활동과 함께 실질적 대안 제시를 강화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 과제가 될 것이다.

11. 표주숙 의원

<1> 표주숙 의원 의정활동 발언 워드 클라우드

〈2〉 표주숙 의원 의정활동 주요 키워드 AI 분석

1. 예산 심의 및 행정 운영 개선

표주숙 의원은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활발히 이어갔다. 대군수지적 문장수는 106건, 지적 비율은 KB 기준 41.43%로 나타났으며, “안되, 부족, 방치, 관리, 예산낭비” 같은 표현을 통해 행정 관리 소홀, 부실 공사, 환경오염, 안전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군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2. 보건·복지 및 생활 정책

복지정책, 사회복지, 아동·노인 복지, 치매 환자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의제가 발언에 자주 등장했다. 취약계층 지원, 아동학대 예방, 노인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제안도 제시하며 군민 생활 안정에 관심을 보였다.

3. 지역경제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여성농업인 지원, 미래농업, 스마트농업 같은 경제·산업 의제를 다뤘다. 일자리 창출, 지역농산물 활용, 투자 유치 등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발언도 확인된다.

4. 환경·에너지 및 안전 정책

쓰레기, 폐기물, 분리수거, 축산악취, 환경오염 등 환경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재난안전, 안전교육, 시설안전 같은 생활 안전 과제도 강조했으며, 에너지 효율과 태양광 같은 의제도 언급했다.

5. 문화·관광 및 교육 정책

국제연극제, 문화예술, 공연장, 복합문화센터 등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교육센터, 평생교육, 교육분야 정책 등 교육 의제에도 관심을 보이며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3〉 표주숙 의원 의정활동 AI 종합 평가

표주숙 의원은 2025년 상반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제를 다루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발언 건수는 1,205건, 발언 총량은 255.83KB에 이르며, 가치발언 문장수는 140건, 가치발언 비율은 KB 기준 54.72%로 기록되었다. 이는 의정활동의 질적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결과로 평가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군수지적 발언 106건을 통해 예산낭비, 행정 관리 소홀,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을 지적하며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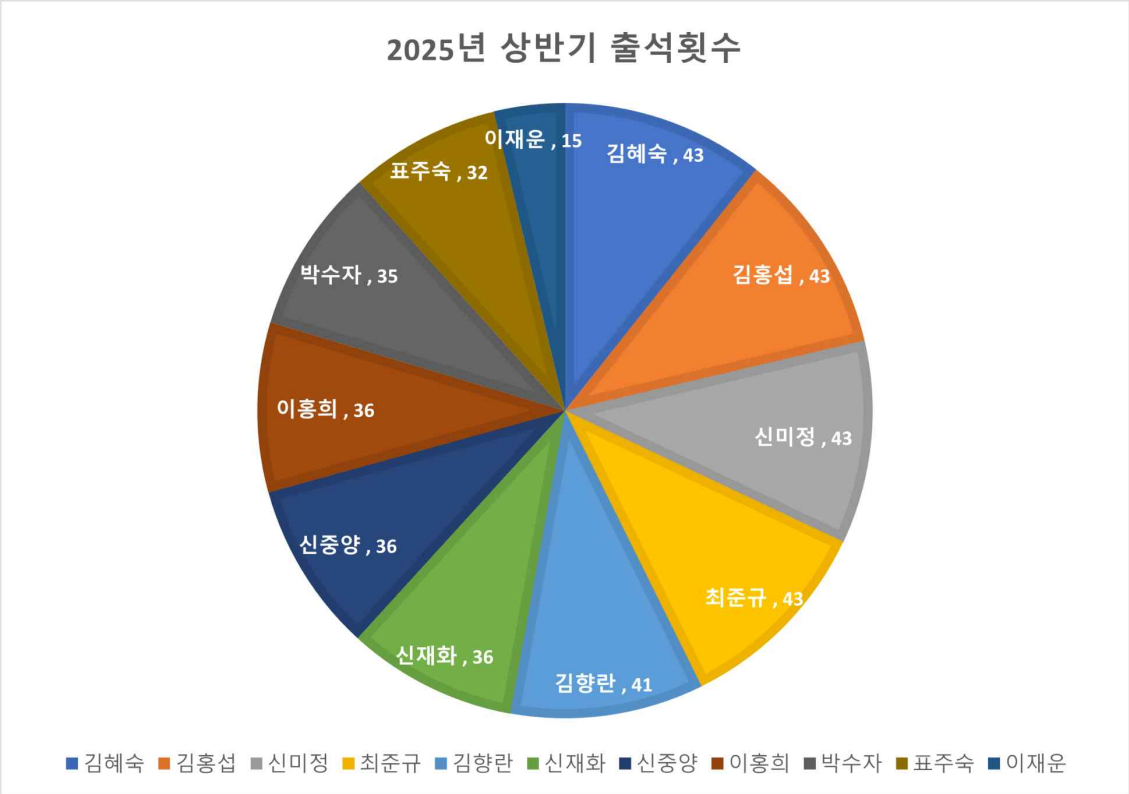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노인복지, 치매 환자 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군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의제를 꾸준히 다뤘다. 지역경제와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여성농업인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자원의 활용과 주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이나 구체적 로드맵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다. 군정 감시와 지적 활동에 더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병행한다면 발언의 설득력과 정책 효과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종합하면, 표주숙 의원은 군정 운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복지·경제·환경·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의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지적 활동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Ⅱ. 군의원 비교 평가

1. 출석(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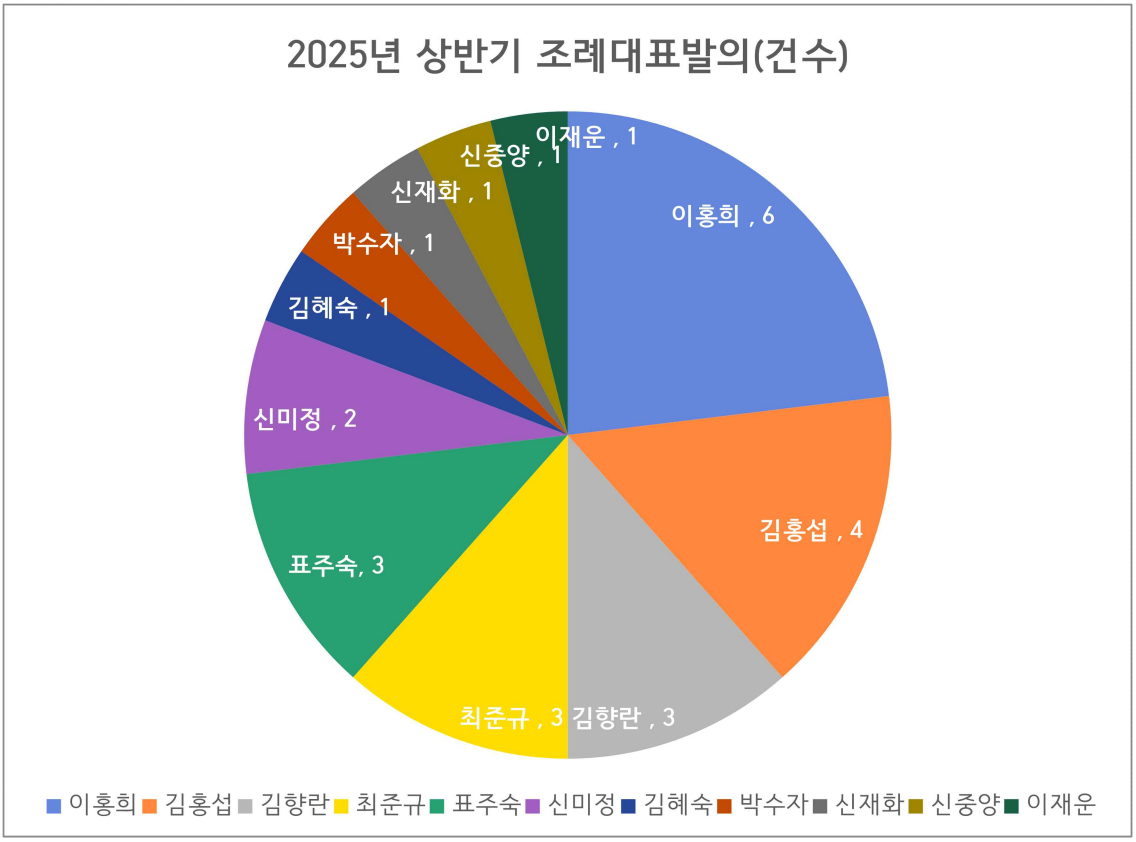
김혜숙	김홍섭	신미정	최준규	김향란	신재화	신중양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이재운
43	43	43	43	41	36	36	36	35	32	15

1. 출석(횟수)은 2025년 상반기(제284회~제287회) 회기 중 6월 30일까지의 분석 결과이다.
2. 분과별 회의 개최 횟수가 다르므로, 의원 개인별 출석 횟수는 이를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
3. 특히 이재운 의원은 의장직 수행으로 분과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 횟수가 적게 나타난다.
4. 순위는 출석 횟수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5.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출석률은 높게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6. 출석은 의원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의정활동 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 위원회 참여의원>

본 회의	김향란, 김혜숙, 김홍섭, 박수자, 신미정, 신재화, 신중양, 이재운, 이홍, 최준규, 표주숙
총무위원회	김향란, 김혜숙, 신미정, 신재화, 신중양(5명)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섭, 박수자, 이홍희, 최준규, 표주숙(5명)
의회운영위원회	김향란, 김홍섭,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5명)

2. 조례대표발의(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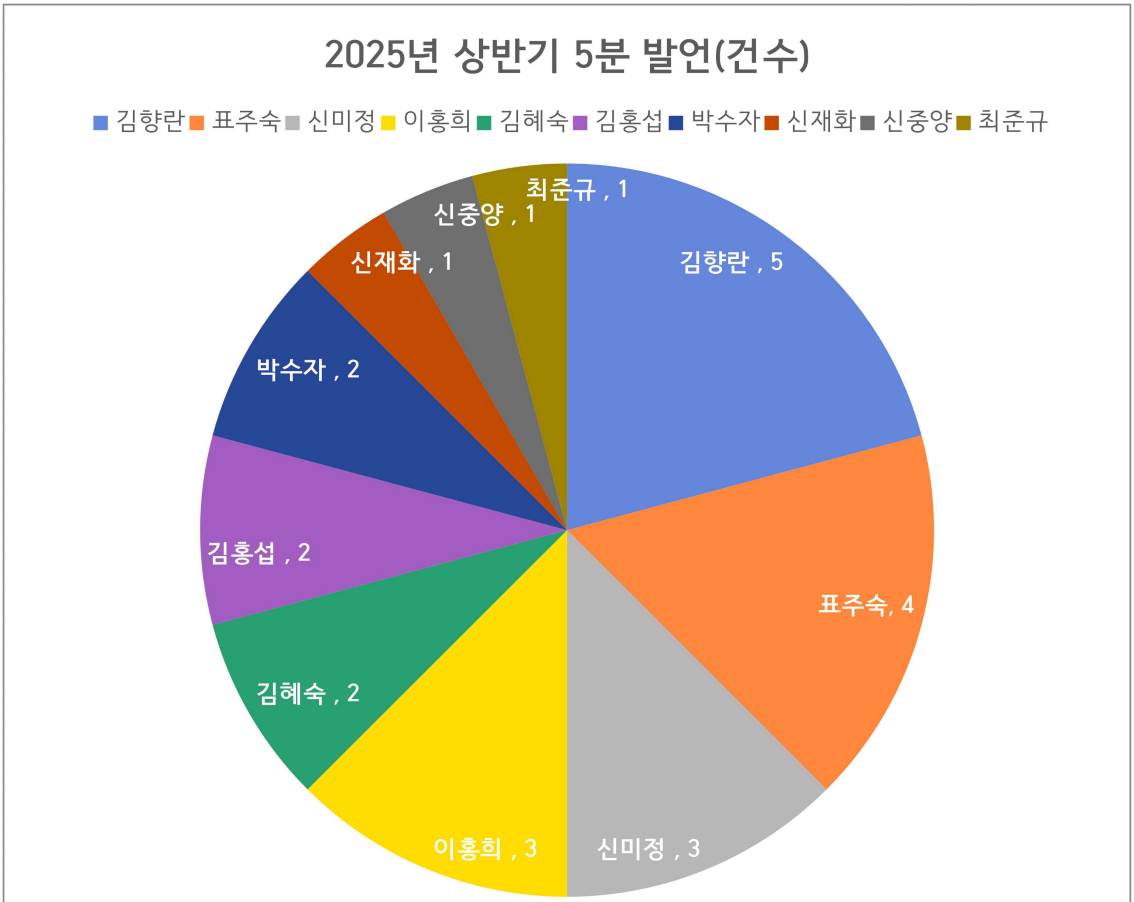
이홍희	김홍섭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신미정	김혜숙	박수자	신재화	신중양	이재운
6	4	3	3	3	2	1	1	1	1	1

1. 조례 대표발의 건수는 공동발의는 제외하고, 대표발의 의원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 조례 대표발의는 군의원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3. 그 결과, 이홍희·김홍섭·김향란·최준규·표주숙 의원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졌다.
4. 다만, 조례 대표발의 역시 단순 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례의 정책성·실효성·군민생활 기여도를 고려한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2025년 상반기 의원 조례 발의 내역>

안건명	발의 의원	소관위원회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이홍희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거창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이홍희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섭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자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표주숙	-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미정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김홍섭	총무위원회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김향란	총무위원회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홍희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홍희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최준규	-
거창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김혜숙	-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이홍희	-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향란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신중양	총무위원회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섭	총무위원회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홍희	총무위원회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표주숙	총무위원회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김홍섭	총무위원회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준규	의회운영위원회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재운	의회운영위원회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향란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준규	총무위원회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표주숙	총무위원회

3. 5분 발언(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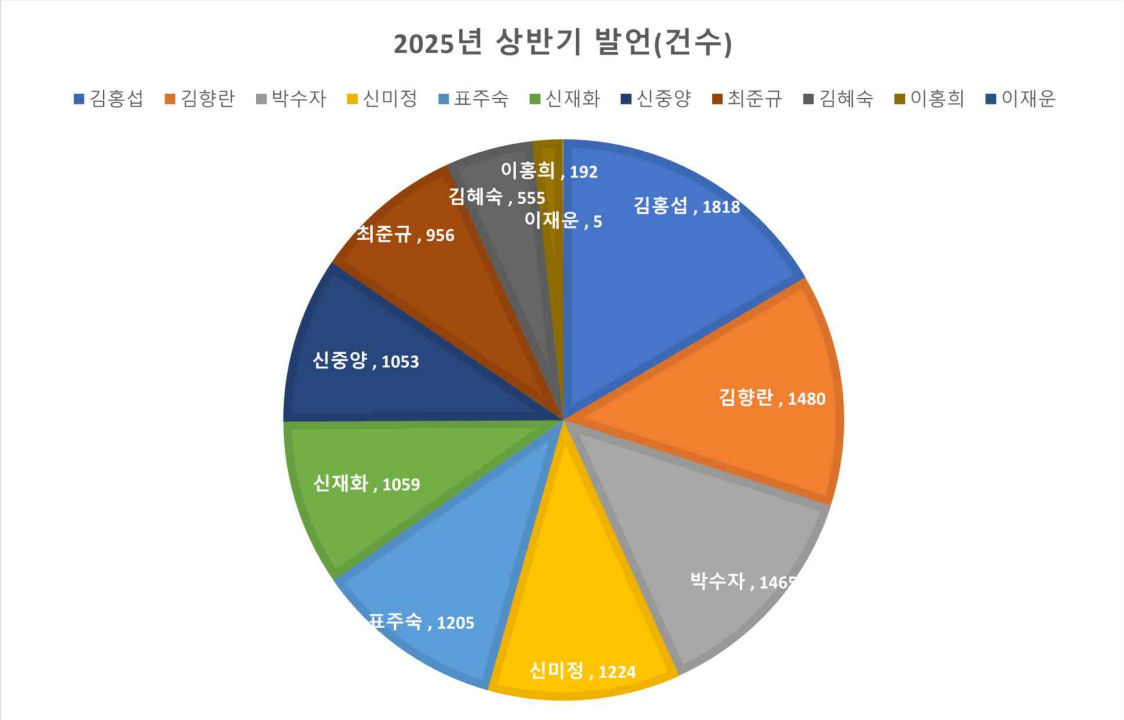
김향란	표주숙	신미정	이홍희	김혜숙	김홍섭	박수자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5	4	3	3	2	2	2	1	1	1	0

1. ‘5분 발언(건수)’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발언 횟수를 의미한다.
2. 김향란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주숙 의원이 4건, 신미정·이홍희 의원이 각각 3건씩 발언하였다.
3. 전반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군정 현안과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5분 발언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4. 다만, 5분 발언은 단순 건수 집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발언 내용의 정책성·실효성·군민 기여도 등을 고려한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2025년 상반기 거창군의원 5분 자유발언 주제>

회기	발언자	제목
제287회	김향란	외국인 근로자와 공존하는 시대의 발전적 제언
제287회	박수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제287회	신중양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에도 관심을 가지자
제287회	김향란	거창창포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제287회	표주숙	철도와 고속도로망 선형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제287회	박수자	청년농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286회	이홍희	양수발전소 유치는 거창의 새로운 기회이다
제286회	김향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사업 확산을 위하여
제286회	신미정	송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중단을 촉구한다!
제286회	김홍섭	거창군 보이스 피싱 피해 증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제286회	최준규	거창군 체육에도 스포츠 비즈니스를 적극 도입하자
제286회	김향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286회	김홍섭	도입 100년 거창사과 기후변화 대응, 시기를 놓치면 미래는 없다.
제286회	표주숙	산불 피해 방지와 산지 자원화를 위한 임도 확충 관심 촉구
제286회	김혜숙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라며
제286회	이홍희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제285회	신미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
제285회	신재화	신장수~무주영동 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제285회	이홍희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제285회	김향란	아이천국 브랜드는 실내놀이터 조성 프로젝트 추진에서 찾자!
제285회	표주숙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제언
제285회	김혜숙	탄소중립 그린도시 거창을 위한 제언
제284회	신미정	'공공 디자인' 활성화를 촉구한다.
제284회	표주숙	초고령사회 노인복지통계 작성 제언

4. 발언(건수)



김홍섭	김향란	박수자	신미정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김혜숙	이홍희	이재운
1818	1480	1465	1224	1205	1059	1053	956	555	19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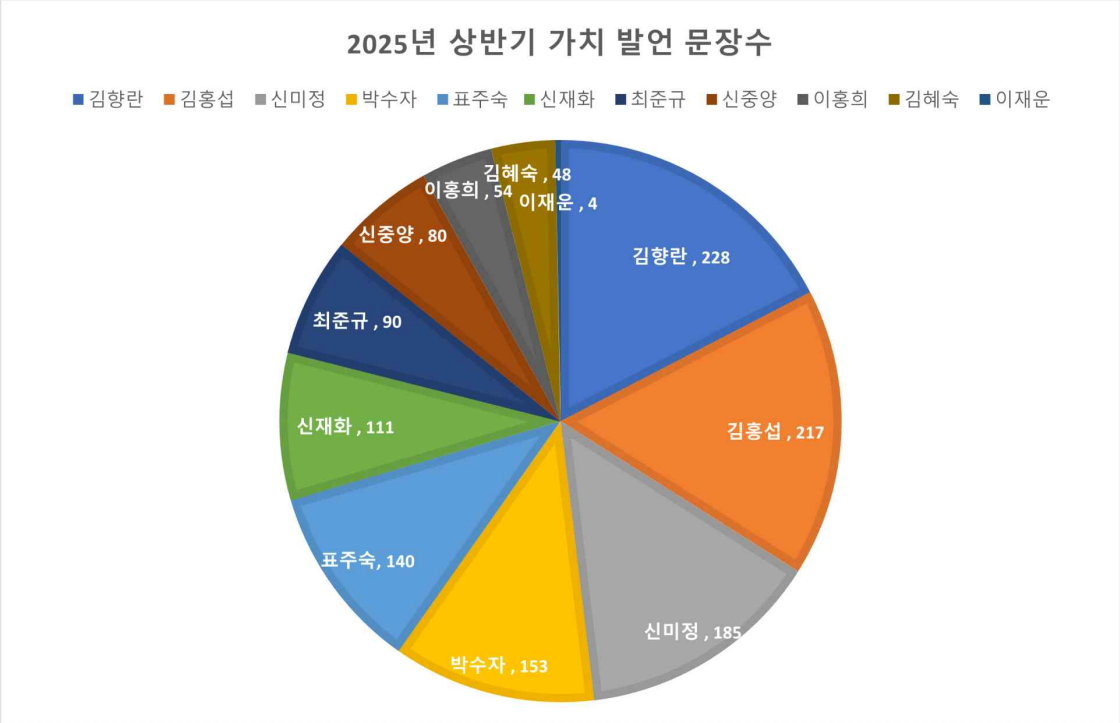
1. ‘발언(건수)’는 의원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 발언은 연구와 준비를 바탕으로 한 의원 활동과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의원의 성실성과 정책 참여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의미가 있다.
3. 김홍섭 의원이 가장 많은 발언을 기록하였다.
4. 발언(건수)은 의장, 부의장, 위원장 등 회의 진행성 발언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개별 의원의 정책 발언만을 집계한 결과이다.

5. 발언 총량(KB)

김홍섭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표주숙	신미정	신중양	최준규	김혜숙	이홍희	이재운
426	409	335	267	255	239	208	206	102	88	52

1. ‘발언 총량(KB)’은 해당 의원이 2025년 상반기에 회의록에 기록한 발언 분량을 전체 텍스트 크기로 환산한 결과이며, 단위는 킬로바이트(KB)로 표시하였다. (소수점 이하는 생략)
2. 김홍섭 의원이 가장 많은 발언량을 기록하였다.
3. 발언 총량은 의원의 참여 정도와 활동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의미가 있지만, 발언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질적 수준이나 논리적 집중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언 총량은 단독으로 보기보다 발언 건수와 가치발언 지표와 함께 비교해야 한다. 발언 건수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서는 ‘짧고 잦은 발언’과 ‘길고 심층적인 발언’의 차이를 알 수 있고, 가치발언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서는 내용적 충실도와 정책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4. 발언 총량(KB)은 의장·부의장·위원장 등 회의 진행성 발언을 제외하고, 순수한 의원 개별 발언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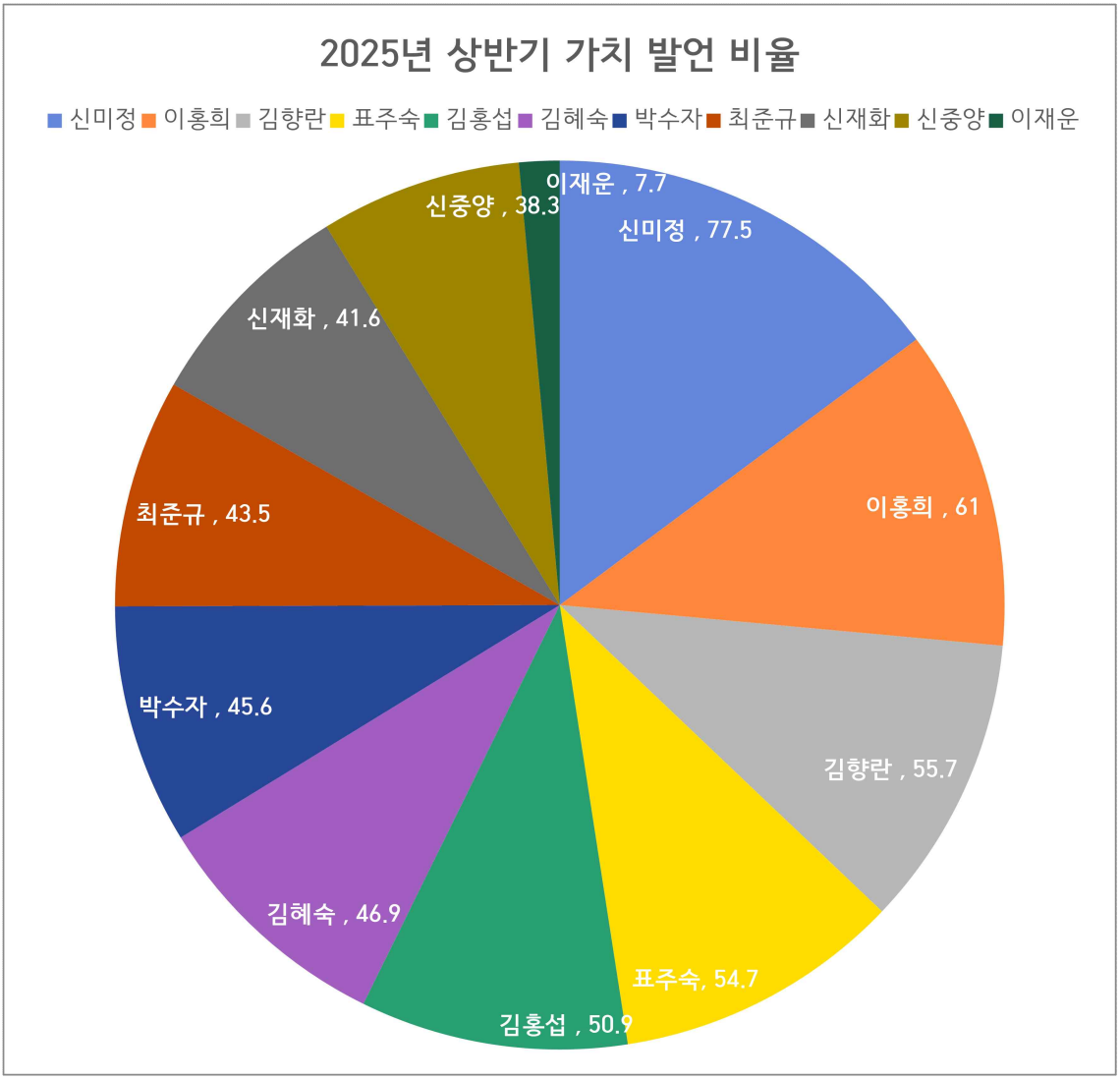
6. 가치발언 문장수



김향란	김홍섭	신미정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최준규	신중양	이홍희	김혜숙	이재운
228	217	185	153	140	111	90	80	54	48	4

1. '가치발언 문장수'는 인공지능이 의원 발언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발전·경제 활성화, 교육·문화, 주민 참여·소통, 안전·환경 개선 등 거창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키워드와 패턴이 포함된 문장에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 값이다.
2. 이는 의원 발언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특히 가치발언 문장수는 의원이 얼마나 정책적·발전적 관점에서 발언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단순 발언량과 구분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가치발언의 강도는 종합 순위에서 별도로 제공하므로 함께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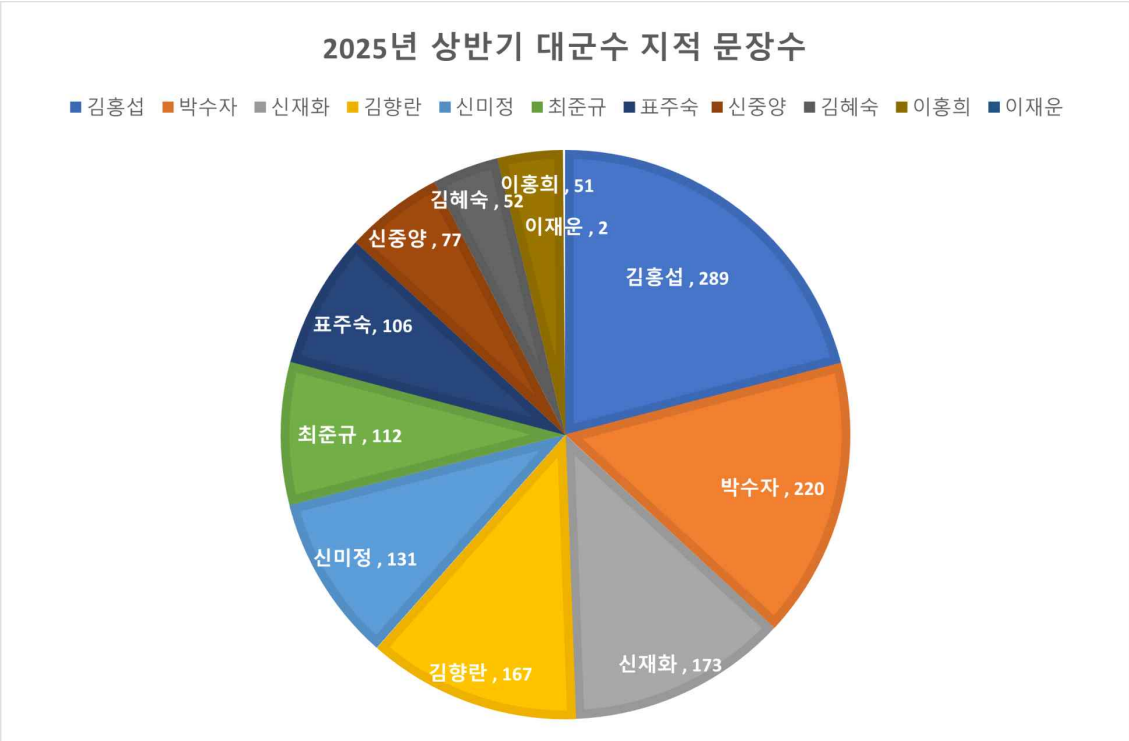
7. 가치발언 비율



신미정	이홍희	김향란	표주숙	김홍섭	김혜숙	박수자	최준규	신재화	신중양	이재운
77.5	61	55.7	54.7	50.9	46.9	45.6	43.5	41.6	38.3	7.7

1. '가치발언 비율'은 해당 의원의 발언 총량(KB) 중 유익한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계산은 가치발언 문장수 ÷ 발언 총량(KB) × 100으로 산출하였다. (발언 총량의 소수점 이하는 생략되어 값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이 값은 의원 발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의되었는지, 또 그 속에 연구와 조사 등 준비 과정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3. 가치발언 문장수 기준의 비율은 종합 순위에서 별도로 제공하므로 함께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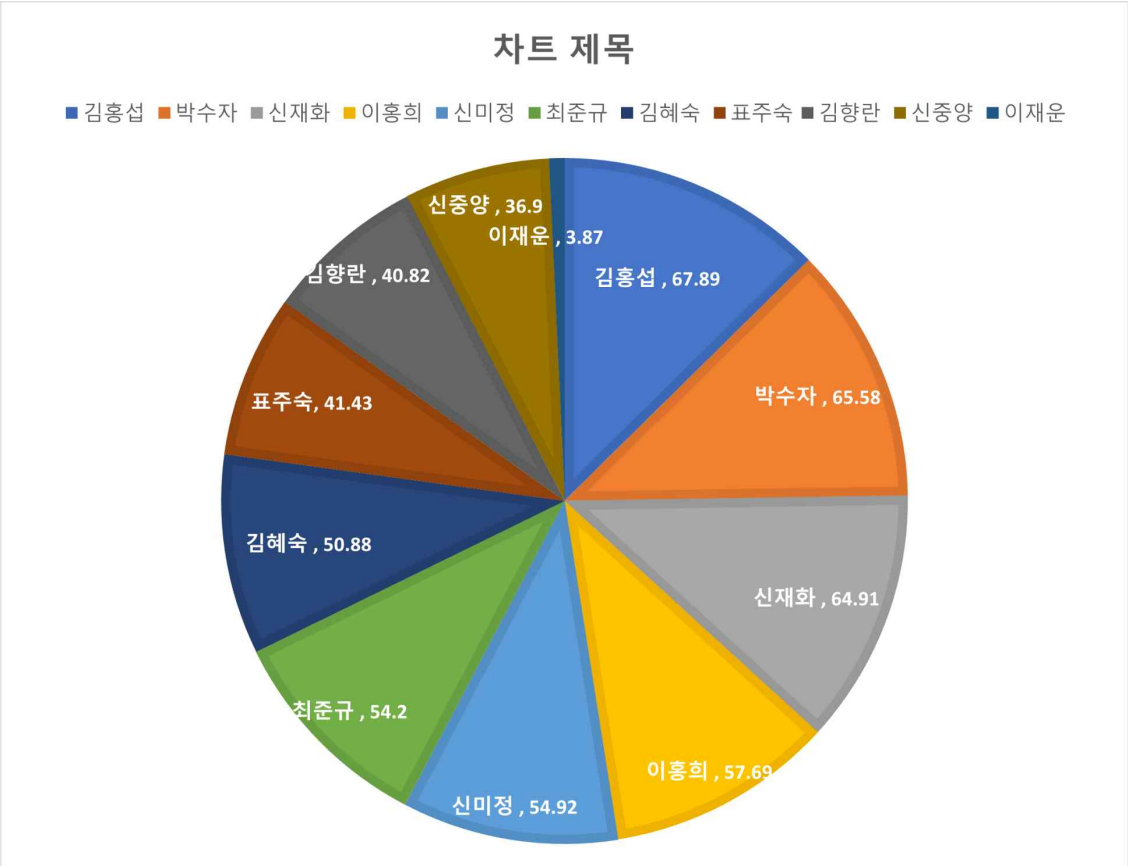
8. 대군수지적 문장수



김홍섭	박수자	신재화	김향란	신미정	최준규	표주숙	신중양	김혜숙	이홍희	이재운
289	220	173	167	131	112	106	77	52	51	2

1. ‘대군수지적 문장수’는 의원이 군수나 거창군청 공무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검토·수정을 요청한 경우를 인공지능이 발언 키워드와 패턴을 분석해 산출한 값이다. 이는 ‘가치발언 문장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2. 군의원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군수와 집행부(거창군청 공무원)에 대한 견제이므로,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발언이나 반대 의사가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 회의록에 남은 군수·군청 제출 안건에 대한 지적과 시정 요청 수준은 의원의 견제 역할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3. 분석 결과, 김홍섭 의원이 가장 많은 지적 발언을 기록했으며, 이어 박수자 의원과 신재화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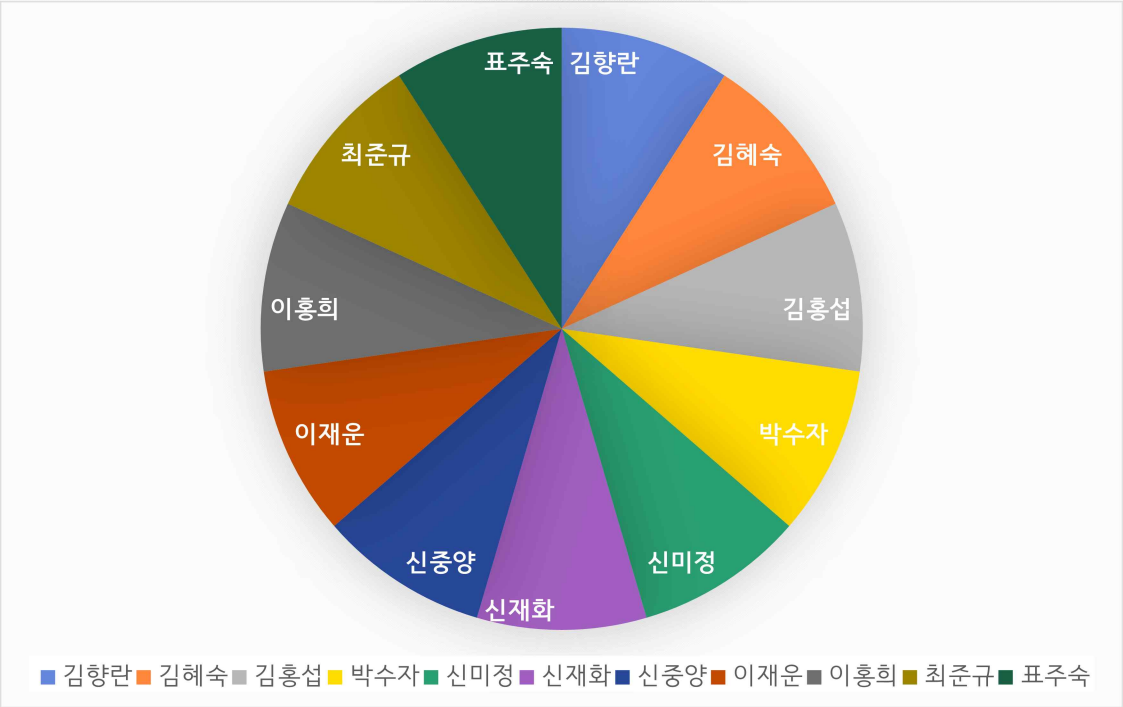
9. 대군수지적 비율



김홍섭	박수자	신재화	이홍희	신미정	최준규	김혜숙	표주숙	김향란	신중양	이재운
67.89	65.58	64.91	57.69	54.92	54.2	50.88	41.43	40.82	36.9	3.87

1. ‘대군수지적 비율’은 의원의 발언 총량(KB) 중에서 군수나 거창군청 공무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검토·수정을 요청한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계산은 대군수지적 문장수 ÷ 발언 총량(KB) × 100으로 산출하였다. (발언 총량의 소수점 이하는 생략되어 값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이 값은 의원 발언 가운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10. 군의원 피고발(건수)



김향란	김혜숙	김홍섭	박수자	신미정	신재화	신중양	이재운	이홍희	최준규	표주숙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1. '피고발(건수)'는 의원의 잘못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이 제기한 고발 건수를 의미한다.
2. 주민의 저항이나 고발은 단순 불만 제기를 넘어, 공직자의 비리나 부정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사익(公私益) 차원에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11. 종합 데이터

<인공지능이 분석한 군의원 의정활동 항목별 데이터>

구분	김향란	김혜숙	김홍섭	박수자	신미정	신재화	신중양	이재운	이홍희	최준규	표주숙
1. 출석(횟수)	41	43	43	35	43	36	36	15	36	43	32
2. 조례대표발의(건수)	3	1	4	1	2	1	1	1	6	3	3
3. 5분 발언(건수)	5	2	2	2	3	1	1	0	3	1	4
4. 발언(건수)	1480	555	1818	1465	1224	1059	1053	5	192	956	1205
5. 발언 총량(KB)	409	102	426	335	239	267	208	52	88	206	255
6. 가치발언 문장수	228	48	217	153	185	111	80	4	54	90	140
7. 가치발언 비율	55.7	46.9	50.9	45.6	77.5	41.6	38.3	7.7	61.0	43.5	54.7
8. 대군수지적 문장수	167	52	289	220	131	173	77	2	51	112	106
9. 대군수지적 비율	40.82	50.88	67.89	65.58	54.92	64.91	36.9	3.87	57.69	54.2	41.43

<인공지능이 분석한 군의원 의정활동 항목별 정성평가 데이터>

구분	김향란	김혜숙	김홍섭	박수자	신미정	신재화	신중양	이재운	이홍희	최준규	표주숙
A. 가치발언 문장수	228	48	217	153	185	111	80	4	54	90	140
B. 가치발언 강도	1.52	1.62	1.42	1.51	1.54	1.24	1.25	9.50	1.87	1.43	1.31
C. 가치발언 비율 (KB 기준)	55.7	46.9	50.9	45.6	77.5	41.6	38.3	7.7	61.0	43.5	54.7
D. 가치발언 비율 (문장 수 기준)	15.40	8.65	11.94	10.44	15.11	10.48	7.60	80.00	28.12	9.41	11.62
E. 대군수지적 문장수	167	52	289	220	131	173	77	2	51	112	106
F. 대군수지적 강도	1.28	1.25	1.25	1.33	1.21	1.32	1.19	3.50	1.75	1.21	1.08
G. 대군수지적 비율 (KB 기준)	40.82	50.88	67.89	65.58	54.92	64.91	36.90	3.87	57.69	54.20	41.43
H. 대군수지적 비율 (문장 수 기준)	11.28	9.37	15.90	15.02	10.70	16.34	7.31	40.00	26.56	11.72	8.80

1. 이번 데이터는 군의원들의 활동을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통해 수치화·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이를 통해 군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3. 본 자료는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근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이며, 보다 세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회의록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업로드 속도와 오류 문제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회의록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 거창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번 평가 작업을 계기로 군의원들이 군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5. 이 자료는 곧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이며, 군민들이 군의회의 활동을 더 투명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6.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도 이러한 분석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